

# 강진군, 'RED 3'로 소비자 눈길 사로잡는다

〈딸기·장미·파프리카〉

## 지역농산물 특색 이용... 색깔 마케팅 전개

“딸기와 장미, 파프리카의 공통점은?” 강진군이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딸기, 장미, 파프리카를 활용해 차별화된 색깔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강진군은 딸기, 장미, 파프리카를 지역 명품 농산물로 지정하고 이들의 공통점인 붉은색에 착안해 이를 '레드(Red) 3'로 이미지화했다. 겨울철 시설원에 작물의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벌이 비치는 양으로, 강진은 전국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강진딸기는 당도가 높고 비타민C 함량이 많아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강진 장미꽃은 청자골 화훼(주)를 중심으로 전남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 이 선호하는 스탠더드 장미를 생산하고 있으며 꽃의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는 품종으로 대도시 화훼 도매시장과 꽃집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 밖에 파프리카는 ISO9001 인증과 GAP(우수농작물 관리제도) 인증을 획득한 강진군의 특화 작물이다. 강진뿐만 아니라 전남지역의 수출을 선도하고 있어 해외수출이 쉽지 않은 농촌지역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파프리카를 생산·유통하고 있는 탐진들(주)에서는 연간 3550t, 13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40%를 일본 등으로 수출하여 외화 획득과 지역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강진군은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강진 농산물 이래서 좋다'란 주제의 전국 UCC 동영상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딸기



장미



파프리카

# 전남도, 태풍·집중호우 대비 퇴적토 준설작업 '한창'

## 54억 투입 하천 413곳 정비

전남도가 다가올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내 소규모 하천의 퇴적토 준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도는 28일 “올해 54억원을 투입해 21개 시·군 413개소 하천의 물 흐름에 지장을 주는 퇴적 토사 115만㎥을 준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담양군 용천 비뚤한 5개 시·군 172개 하천에 대한 준설작업을 끝냈고,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는 오는 5월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도와 협의의 후 도내 하천 중 인명 및 재산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강진군 작천면 금강천(지방하천)을 선정, 준설 장비 55대를 지원해 1.6km 구간의 퇴적토사 준설과 고수부지 정비에 나서기도 했다. (사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지난 2007년부터 22개 시·군에 구성된



전남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최근 강진군 작천면 금강천에서 퇴적토 준설작업을 실시했다. (전남도 제공)

전문건설협회 지회가 보유한 굴삭기 등 준설장비를 기증한 등 실비만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퇴적 토사 준설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오광록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오는 6월 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하천원해주는 방식으로 퇴적 토사 준설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오는 6월 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하천원해주는 방식으로 퇴적 토사 준설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 장흥군 친환경 무산김 수도권 학교급식 공급

양식 과정에 염산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장흥 무산(無鹽)김'이 수도권 지역 80여 곳에 학교급식용으로 납품된다. 장흥군은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윤승중 부군수, 장흥무산김 주식회사(대표 김양진), 친환경 농산물협회(회장 이종익)가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친환경 학교급식 유통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장흥 무산김(주)는 학교급식 재료로 친환경 김을 제조해 수도권 학교에 공급하게 된다. 한편 지난 1월 장흥무산김(주)에서는 미국 농무부 유기농(USDA)인증과 친환경 인증 및 지리표적시 등 록 등 국내외 모든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패거리를 이뤘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 담양군, '대숲맑은 공예마을'

## 문체부 사업 선정...국비 지원

담양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2014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재)한국 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이 진행한 이번 공모사업은 19개 시·군이 신청, 1차로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5개 시·군을 선정하고,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2차 현장실사를 거쳐 담양군과 공주시가 최종 선정됐다. '2014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은 지역문화와 고유의 특색을 지닌 지역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 공예자원을 전략적 컨설팅을 통해 대표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3년간 개소당 매년 1억원과 상품개발비 3000만원씩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또 지역 공예인, 지자체 및 산학연간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공예문화 진흥 체계를 마련한다. 이번에 선정된 '대숲맑은 담양 공예마을' 육성사업은 지역 공예인·공예마을·공예방·판매장 DB구축사업, 1읍·면 1공예마을 조성공예인 양성교육, 지역특화 공예상품, 디자인 개발,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공예산업 활성화 등을 (사)담양군 공예인협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선정은 '2015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공예인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 영암,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모집

영암군이 오는 5월 9일까지 '2014년도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우수 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와 미래 농업에 이끌어갈 전문 인력의 체계적 확보 유지를 위해 실시된다. 대상자는 지난 2008년 12월 이전에 선정된 후계농가운데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자로, 주민등록 거주지의 주소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지 구입과 농업용 시설 설치, 축사부지 구입, 축사시설 설치, 흙페이 지 개발 등을 지원한다. 특히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시 최대 2억 원의 국고융자를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리 1%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대외시장 개방 확대와 국내 농산물 유통시장의 경쟁 심화 등으로 침체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속적으로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 전북 단신

**동학 기념제**  
**일정 대폭 축소**  
**세월호에도 동참**  
**공식행사만 진행**

동학 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아 다음달 열리는 올해 향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이하 기념제)가 대폭 축소돼 열린다. 기념제 조직위원회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당초 5월 10~11일 이틀간 개최 예정이던 기념제를 11일 하루동안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념제 조직위는 공연과 체험, 캠프, 청소년축전 등 프로그램을 전면 취소하고, 기념식과 위패 봉안례 등 공식행사 중심으로 대폭 줄였다. 기념제 공식행사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및 47회 기념제 기념식을 비롯해 동학농민혁명 대상 시상식, 구민사 갑오 선열 위패 봉안례 등으로 구성된다. 전도교에서는 동학혁명 향토현 전승 기념식을 주관한다. 기념제 일정 변경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기념제 홈페이지(www.donghak.co.kr)와 (사)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063-538-1894)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정읍시, 단종 비 '정순왕후' 생애 기린다

태생지 칠보면 동편마을 1억5천만원 투입 관광화

중의 비인 정순왕후의 생애를 기리기 위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사람 얼굴을 보고 왕위를 노리는 사람을 가려낸다는 내용의 영화 '관상'이 인기를 끌면서 수양대군과 단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종의 비인 정순왕후(1440~1521년)는 본관이 여산(宋)씨로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동편마을이 태생지로 알려져 있다. 정읍시는 정순왕후의 생애를 기리기 위한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1억5000만원을 들여 왕후의 동편마을 일원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태생지를 비롯해 태산선비 문화의 중심인 무성사원과 상촌곡 관련 문화자원을 개발하고, 호남제일정(湖南第一亭)으로 손꼽히는 피향정 등을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또 이곳에 생태형 연못을 조성하고, 등의자와 나 무다리 등을 설치해 쾌적한 공간을 연출한다. 한편 정순왕후는 관동병사 송헌수의 딸로 삼공이 공손하고 검소해 단종의 정비에 올랐지만 단종이 유배돼 죽음을 맞이했다. 정순왕후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사릉리에 잠들어 있고, 단종의 유배지였던 강원도 영월군은 매년 4월 중 개최하는 단종문화제에서 정순왕후 선발대회도 열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순창군, 노후설계 교육...2년 연속 국가 공모사업 선정

올해 말까지 550명 대상 '골드룩'·'인생대학' 등 진행

순창군의 노후설계 교육이 2년 연속 국가 공모사업에 최근 선정됐다. 순창군은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에서 공모한 '2014년 노후설계 지자체 교육기반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3000만원 지원과 향후 (가칭)지역 노후설계 지원센터로 지정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후설계 지자체 교육기반 조성사업은 '베이비 부머' 등 40세 이상 은퇴자나 은퇴 이전의 체계적인 노후설계를 돕기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는 사업이다. 군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노후설계 교육생 3000여명을 성공적으로 배출하는 등 고령사회를 대비한 선도적인 시책을 추진해왔다. 올해 노후 설계교육은 5월부터 2 월까지 550여명을 대상으로 '골드룩', 제3기 인생대학, 미니 메드(mini med) 스쿨(3박4일) 등 과정과 관계 개선 과정(1박2일) 등으로 나눠 운영된다. 이번 과정은 건강장수 힐링체 험과 강찬산 맨발 산책로 체험, 고추장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힐링과 체험이 가득한 힐링형 노후설계 교육을 통해 일상에 지친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063-650-1512)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지난해 순창군에서 노후 설계교육 일환으로 진행한 '골드룩' 과정. (순창군 제공)

# '남원 인월시장 토요일' 다음달 3일부터 운영

남원시 인월시장 토요일이 다음달 3일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된다. 지리산 입구에 위치한 인월시장은 신라와 백제시대부터 섬진강의 수로를 통해 화계장터를 거쳐 소금 등을 지리산 산간지역에 보급하던 물류 유통지였다. 특히 오일장(3·8일)과 겹치는 토요일에는 이벤트 행사를 열어 더욱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토요일에는 시골장터의 정겨움 그대로 계절별 농·특산물을 구매했을 수 있고, 장터구수와 부침개·도토리묵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맛 볼 수 있다. /남원=백성수기자 bs787@kwangju.co.kr

# 정읍경찰서, 박헌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초청 특강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는 지난 25일 박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을 초빙해 경찰관과 일반 직원, 의경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금요 명사특강을 실시했다. 박 지원장은 '법률문화'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건물 매매와 임대차 계약 관련 사례 등 생활속 법률상식을 비롯해 4대악(惡) 중 하나인 가정폭력에 대해 기관간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강조했다. 박 지원장은 “경찰관들이 항상 시민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멋진 경찰, 평소 자기 확신과 교양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는 경찰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블루베리 설명회 개최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6일 구입된 소득개발 시범포에서 블루베리 분양농장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올해 블루베리 분양농장을 조성, 도시민 52가구에 670주를 분양해 호응을 얻었다. 또 군은 분양농장 인근 부지에 캠핑과 분양농장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힐링 분양농장'도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신청자들은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 사이에 블루베리를 직접 수확할 수 있다”며 “오는 2016년까지 블루베리 분양규모를 200가구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고창 군립 성호도서관, 양초공예 프로그램 진행

고창 군립 성호도서관은 지역 내 아동들을 위한 문화행사로 '햇초코 파란콩 양초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30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성호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진행되며, 관내 초등학생들이 양초공예에 대해 배우고, 공예품 제작을 실습하는 과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공예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손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며 두뇌개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3-560-8053. /고창=윤창희기자 cy0370@